

U대회 잉여금 체육관건립 사용될 듯

대구시, 자문위서 논의

‘2003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이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등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학·언론·법조·경제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유니버시아드 잉여금 730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계U대회를 기념하고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을 최우선 사업으로 제안했다.

자문위는 또 문화사업과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장학사업 등에 잉여금을 배분할 것을 주문하고, U대회 당시 경기장을 제공한 경북도에 일정액을

배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 초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위원 17명과 시의원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말까지 잉여금 사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최종역 체육진흥과장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 뒤 대구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체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기자 gylee@idaegu.com